



인텔진영 'PC99' 발표

내년에 표준으로 등장할 PC는 어떤 모습일까. 'PC99(버전 0.7)'가 최근 발표되면서 내년도 표준 PC가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PC99'란 미국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하는 하드웨어 규격. 권장 사항에 불과하지만 세계 컴퓨터 시장을 주도하는 두 회사의 발표인 만큼 세계 PC 하드웨어,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업계가 이를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PC99는 버전 0.7.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공개될 PC99의 규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내년도 표준 PC 설계 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MS의 윈도우NT를 비롯, 올해 출시되는 윈도우98 운용체계에 맞춰졌다는 점. 윈도우NT와 윈도우98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 조작의

편이성을 높이고 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그래픽, 동영상 장비 및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등의 기기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하면 PC가 알아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플러그 앤드 플레이 기능이 보강됐고 스위치를 켜면 바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나우(OnNow) 기능을 강화해 부팅시간이 길다는 윈도우98과 윈도우NT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PC99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반 PC를 기업용, 가정용으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데스크톱 PC, 워크스테이션PC, 이동형PC, 엔터테인먼트PC 등 4개 범주로 구분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네트워크PC에 대한 별도의 범주를 없애 이들 두 업체의 네트워크PC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또한 윈도우CE에 대한 언급도 적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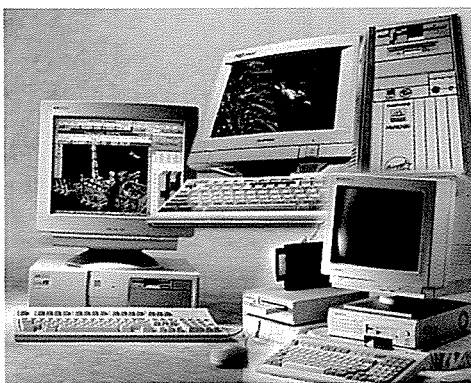
PC99의 시스템 요건은 인텔의 MMX기술에 기반한 300MHz 프로세서, 128KB의 레벨2 캐시, 32MB램. 기업용 PC는 64MB를 기본

으로 한다. 워크스테이션PC는 400MHz 프로세서에 256KB L2캐시, 128MB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동PC는 200MHz에 128KB L2캐시, 32MB램을 기본 사양으로 하고 있다. 또 포트를 2개 두고 하나의 포트를 이동형 PC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용이나 기업용 PC도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높여 2배속 DVD롬을 권장사항으로 했다. PC99는 무엇보다 엔터테인먼트 및 소비자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56Kbps V.90모뎀을 기본 사양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용 PC의 네트워크화를 겨냥해 네트워크 어댑터를 반드시 두고 기본 그래픽카드도 AGP를 권장하고 있다.

이동전화 선불카드 '붓물'

미리 납부한 금액만큼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선불카드가 잇따라 선보여 단기 사용자나 계획적인 통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동전화 사용이 한층 편리해지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이 가입비와 기본료 개념을 없앤 이동전화 선불카드를 선보인 데 이어 한국통신프리텔과 신세기통신 등도 유사한 개념의 선불카드를 조만간 잇따라 선보일 계획이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선불카드에는 중고 단말기를 임대하거나 보유한



▲ 'PC99'가 최근 발표되면서 내년도 표준 PC가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 SK텔레콤이 선보인 이동전화 선불카드.

서비스 미가입 고객이 가입비나 보증금 없이 10초당 65원의 통화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등 4종류의 카드가 판매중이다.

한국통신프리텔은 이달부터 기존 PCS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납제 방식의 선불카드인 '016 선불전화서비스'를 시작한다. 한통프리텔의 선불카드는 기존 가입자가 일정 금액의 선불카드를 구입, 등록 후 사용하면 월 통화요금 고지서 카드 액수만큼 요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액면가의 6%가 보너스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화료는 기존과 동일하며 카드금액이 소진되면 가입자의 일반통화로 자동전환된다. 카드권종은 5,000원권, 1만원권, 3만원권 등 3종이 발행되며 한통프리텔은 우선 사내직원 및 대리점용으로 1만장을 발행,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7월부터 전국 영업소나 희망 대리점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셀콤코리아를 통해 97년부터 선납제 방식의 선불카드를 이미 판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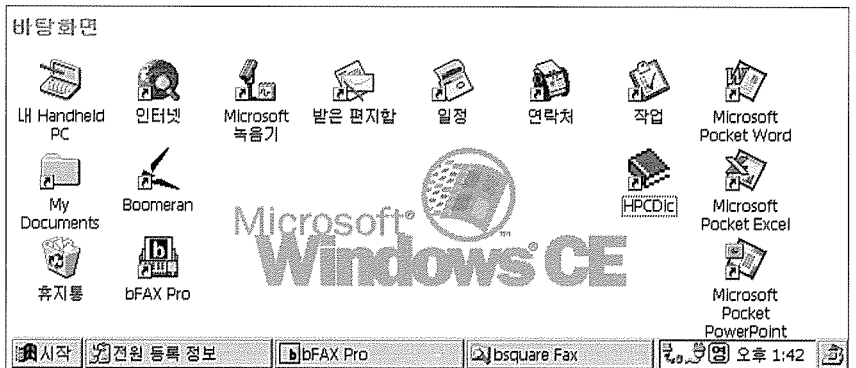
왔던 기존 방식과 달리 통화시간만큼만 세금과 요금이 부과되는 형태. 신세기통신의 한 관계자는 "이미 출시된 이동전화 선불카드와 비교해 요금 및 사용편리성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 PC 시장 기지개

'손바닥 PC' 시장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손에 잡히는 크기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문서작성 뿐 아니라 통신·인터넷 사용, 팩스 보내기도 가능한 초소형 이동 컴퓨터가 일반인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한 것. 지난해 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손바닥 크기의 핸드 컴퓨터 '모빌리안'을 개발해 시판에 나섰던 LG전자는 기능을 강화한 '모빌리안 II'를 개발, 곧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CE 2.0 환경에서 작동하는 모빌리안 II는 목소리 녹음 기능, 콤팩트 플래시 카드에 4MB 자료를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콤팩트 플래시 슬롯 기능 등을 추가해 이동중 사용의 편리성을 더욱 높였다. 크기는 오히려 첫 제품에 비해 커졌다. 750g으로 자판이 너무 작아 사용하기 불편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가격은 88만원선.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LG전자측은 모빌리안 II 구입자에게 LG텔레콤 019 휴대폰을 지급, 휴대폰과 컴퓨터를 연결해 무선 데이터 통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올 1월 포켓PC를 개발해 수출에 주력해 온 삼성전자도 손바닥에 잡히는 작은 크기의 팜 PC 신제품을 올 가을 시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보일 삼성전자 제품은 키보드가 따로 없이 컴퓨터에 달린 펜으로 화면을 두드리면서 원하는 정보를 확



▲ LG전자의 초소형 이동 컴퓨터 '모빌리안II'

인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전자우편과 통신이 가능하고 제한된 한도 안에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도록 28.8K 모뎀을 선택사양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데이터 무선 통신이 가능한 휴대폰과 시리얼 케이블로 연결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가격은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개인휴대용 단말기 팜파일럿 가격인 50만~6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대우통신이 개발, 7월초부터 수출을 시작한 '오토 PC'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길을 안내해주는 항법 시스템이 내장돼 있는데 11월 국내에 시판할 계획이 잡혀 있다. LG전자 PDA팀 이병희과장은 "이제까지 초소형 이동 컴퓨터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 등 특정층에 수요가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 그 층은 더 두터워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1인 컴퓨터 2대, 3대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IMF 구제금융시대와 맞물려 국내 시장 확산에서는 올해를 넘겨서야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던 초소형 이동 컴퓨터의 국내 시판이 이처럼 꿈틀거리는 것은 최근의 우리나라 제반 통신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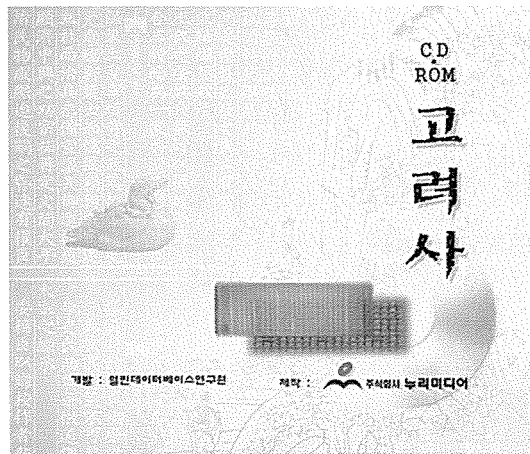
휴대폰의 폭발적인 보급과 함께 데이터 무선 전송이 점점 수월해지고 있는 통신 환경이 그 첫번째 이유다. 이미 데이터 무선 전송사업을 시작한 LG텔레콤의 019 뿐 아니라, 한국통신 프리텔 016도 오는 9

월부터 무선 데이터 전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화선 유무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이동 컴퓨터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간통신사업자 에어미디어가 최근 국산 데이터 무선 전송용 모뎀을 개발해 낸 것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시판되는 무선 데이터 통신 가능 PCMCIA 카드는 모토롤라 제품 뿐으로 거의 90만원선에 육박했지만 국산화 성공으로 8월께면 30만원선에 보급될 예정인 것도 초소형 이동 컴퓨터 사용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고려사 CD롬에 담겨 나왔다

조선왕조실록, 삼국사기와 더불어



▲ 고려 475년의 역사인 고려사가 CD롬에 담겨 나왔다.

우리 민족 3대 정사(正史)의 하나인 '고려사'가 CD롬에 담겨 나왔다. 고려사는 조선의 개국 공신 정도전이 시작해 무려 57년간 하륜과 이숙번, 변계량 등의 손을 거쳐 다시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넘겨지면서 문종

1년 1451년 편찬된 고려 475년의 역사.

데이터베이스(DB) 개발 전문업체 누리미디어가 전자책으로 펴낸 'CD롬 고려사'는 고려사를 PC로 읽을 수 있게 됐다는 점 뿐 아니라 남북한 출판관계약이 이루어진 최초의 전자책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누리미디어는 북한 사회과학원과 계약을 맺고 지난 66년 간행된 「북녘 고려사」의 출판물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을 위임받았다. 「북녘 고려사」는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주석, 중학생이라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알기 쉬운 문체로 쓰여졌다는 것이 특징.

'CD롬 고려사'는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열전 50권 등 1백37권의 고려사 원문자료와 북녘번역본을 담아낸 1집과 운영프로그램을 수록한 2집으로 구성됐다. 전자책이기 때문에 윈도 탐색기 방식으로 목차가 표시된 화면 원편의 창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곧바로 연결되는 편리한 검색시스템을 채용, 방대한 고려사의 어떤 페이지든 마음대로 펴 볼 수 있다.

번역문을 보다가 마우스 클릭 한번만으로 곧바로 원문을 띄워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전자책의 장점이다. 검색어 입력과 동시에 그 질의어와 연결한 본문 내의 1천단어가 자동색인으로 떠오르는 연접어 검색 기능도 돋보인다. 또한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 소재 국

보급 문화재의 선명한 슬라이드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해 놓았다.

‘CD롬 고려사’는 34대까지 이어진 고려왕조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끊임없는 침탈과 시련 속에서도 팔만대장경과 고려청자로 상징되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겼던 고려인의 삶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깊다. 특히 고려사는 조선조 건국 직후 역성혁명의 정당성 입증에 위해 편찬이 시작되었음에도 ‘이실직필(以實直筆)’, 즉 사실은 있는 그대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끝은 선비 정신과 ‘나라는 멸망시킬 수 있어도 역사는 멸망시킬 수 없다’는 신념에 의해 편찬되었기 때

터 유사한 혐의로 제소당해 거추가 주목된다. 인텔마저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됨에 따라 그동안 세계 PC산업의 표준을 정착시켜온 ‘인텔’ 진영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PC업계의 세력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텔에 대한 FTC의 혐의내용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인텔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해 경쟁업체를 통제하고 자사의 비위를 거스르는 고객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자행해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텔이 역시 프로세서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 불법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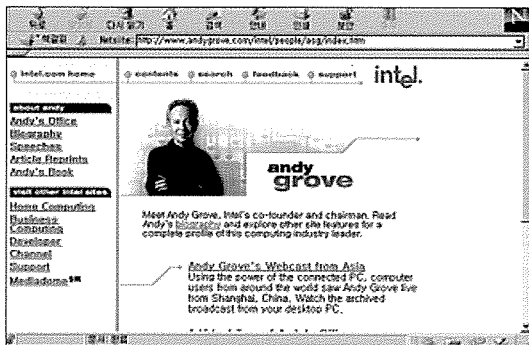
방법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텔에 대한 첫번째 혐의와 관련, FTC는 특히 인텔이 자사에 대한 특허소송 제기를 이유로 2개의 고객기업에 불이익을 준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디지털 이큅먼트와 인터그래프. 지난해 두 회사가 각각 자사에 대해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인텔이 이들에 대해 프로세서 공급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는 것이다. 인텔은 디지털에 대해선 그 후 이 회사의 반도체부문 매입을 통해 화해를 이루었으나 인터그래프에 대해선 최근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연방법원으로부터

터 인터그래프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TC는 또 인텔이 자사 경쟁업체로부터 프로세서를 구입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은 ‘인텔 인사이트’라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전개하면서 지난 한해동안 자사 칩만을 사용하는 업체에는 10억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경쟁업체들은 인텔의 이같은 행위가 경쟁제품을 고사시키고 시장을 독점해 자사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배타적 거래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인텔이 프로세서시장의 독점을 이용, 새로운 시장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는 또다른 혐의와 관련해선 최근 몇년새 이 회사의 칩세트 시장점유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중요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연계 사용하는 칩세트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은 지난 93년 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5% 이상으로 급성장했다. 반면 경쟁업체였던 VLSI 리서치 등은 이 시장에서 밀려났다.

인텔은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 그래픽과 네트워킹 칩시장 지배도 노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텔이 인텔 주기판에 프로세서와 이들 칩을 끼워 파는 방법 등으로 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FTC도 그것이 프로세서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라면 ‘공정경쟁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①



▲ MS에 이어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제소된 인텔사 앤디 그로브 회자의 홈페이지.

문에 독자들에게 역사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 761-1661.

MS에 이어 인텔도 반독점법 위반 제소

반독점법 위반을 감시하는 미국 독점규제당국의 다음 타깃은 인텔이다. 최근 미 법무부와 20개 주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제소한 데 이어 인텔도 미 연방무역위원회(FTC)로부터